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1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당 (434) | 봉헌 (215) | 성체 (174) | 파견 (28) |
|---------|----------|----------|----------|---------|

**제1독서** | 말라 3,1-4

**화답송** | 시편 24(23),7.8.9.10(© 10ㄴㄷ)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2독서** |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 루카 2,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 루카 2,22-40<또는 2,22-32>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26 | 유 요한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 2/2  | 이 그레이스 | 고 안나   | 박 다니엘 |
| 2/9  | 이 그레이스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2/16 | 이 그레이스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60    특별헌금: \$100

| 지난 주일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 \$90 | \$     | \$10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15 | 김 마론/ 김 헬레나   | 1/11 | 유 요한/ 유 마리아   |
| 2/22 |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 1/18 |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
| 2/29 | 손 아놀드/ 손 쟈마   | 1/25 | 홍 마르코/ 홍 아네스  |
| 3/7  | 이 글라라/ 장 글라라  | 2/1  | 김 요아킴/ 고 안나   |
| 3/14 |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 2/8  |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말씀의 기적**

-조한철 안토니오 | 배우-

어린 시절, 저는 악동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쁜 부모님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저는 집안에서는 골칫거리, 동네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늘 싸움을 걸고, 괴롭히고, 부수고, 더럽히고, 악을 쓰는 아이였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욕지거리를 하며 싸우자고 덤비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시의 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도 저의 말썽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미사 시간이나 교리 시간에 말썽을 부리는 것이 저는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한수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녀님은 기적처럼 저를 착한 아이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수녀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우리 착한 안토니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항상 그렇게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왔구나”, “우리 착한 안토니오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수녀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전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소문난 말썽꾼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지, 처음엔 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녀님의 말씀은 저를 빠르게 바꿔놓았습니다. 아마도 수녀님께 그렇게 불리는 게 내심 좋았던 모양입니다. 수녀님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성당에 더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2 월 6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 2 월 2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2 월 1 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어제 있었던 홈리스 조식봉사에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말 선물을 위한 헌금 도네이션을 해주신 교우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녔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착한 안토니오’가 되어갔습니다. ‘착한 안토니오’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시면 저는 친구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우리 착한 안토니오는 기도 열심히 하지?” 하시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새벽 미사 나올 수 있을까? 안토니오가 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에 저는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가 복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달라졌고 꽤 좋은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누고 보살피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수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폭력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수녀님 역시 말씀으로 저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 사람을 예쁘게 하는 말, 스스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묵상**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장-